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치매... 더이상 남의 일 아니다



광주 1만3천명·전남 3만8천명

가족들 정신적·경제적 부담 커

초기환자 장기요양보협지원 제외

체계적 치매관리시스템 마련돼야

#1. 강진에 사는 박모(여·53)씨는 5년 전부터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박씨는 24시간 시어머니 곁을 지키면서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직접 받아내고 있다. 자신도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권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지만, 시어머니 간호를 생각하면 내놓고 아프다는 소리도 못한다.

박씨는 시어머니를 요양시설에 모시는 일에 대해 “어머님과 3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들었다”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힘이 닿는 한 집에서 계속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2. 이모(75)씨 아내(71)는 지난해 초 무릎관절 수술을 받은 뒤 치매 증세를 보였다. 이씨는 “요양원으로 보내자”는 자식들의 권유를 뿌리친 채 홀로 병시중을 들었다. 이씨는 몇 달 전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애내는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하지만, 아내의 증세는 호전되기는커녕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해졌다. 자식들의 연락도 점차 뜸해졌다. 결국, 이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 아내에게 극약을 먹인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이들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인 이복의 아버지가 최근 치매를 앓고 있던 조부모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만큼 치매 환자와 주변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더 이상 개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어느 때보다 높다. 차체에 더 이상 비극적인 선택이 없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매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등 보완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거세게 일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인구는 2008년 42만1000명에서 지난 2012년 53만4000명으로 11만3000명 증가했다.

지난 2012년 65세 이상 전체 인구 중 치매환자 비율은 9.1%로 고령인구 100명 중 9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각각 1만 3227명, 3만8372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치매종합관리대책(2008~2014) 및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13~2015)을 세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차 계획에는 치매의 조기발견과 예방 강화, 중증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 등을 목표로 추진중이지만 해당 가족들이 피부에 와 닿을만한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당장, 치매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요양병원 원은 현재 73개소, 치매전문 공립요양병원(치매 거점병원)은 29개소에 불과하다. 이중 대부분은 치매전문인력 부족을 이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요양병원으로 바뀌었다.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도 부족하다.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 탓이다. 때문에 현재 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과정 없이 단기간 내에 자격증을 취득해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식이 모셔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데다, 요양병원의 부실한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 등이 맞

물리면서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데 주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복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치매노인을 위한 지원 제도도 미흡하다. 현재 치매노인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 치료비의 일부(15%,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7.5%)만 자비로 부담한다. 하지만, 건강상태평가 결과 1~3등급을 받지 못한 초기 환자의 경우 모든 지원에서 제외된다.

결국, 집안에 치매 환자가 생기면 가족들은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정신적인 부담까지 떠안는 형태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다.

치매 환자를 둔 가정에서 일어나는 극단적 사건도 매년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치매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는 ‘치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 초기엔 수년 간 지극정성으로 환자를 돌보지만 간병과 치료가 장기화돼다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현실에 절망한다는 것이다.

광주시 복지 관계자는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질환”이라며 “치매 예방은 물론이고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화된 치매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치매환자 느는데 전문시설·인력 턱없이 부족

광주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 치매환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치매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 인력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1만2400명으로 첫 치매 유병률 전국 조사가 시작된 2008년 1만명보다 24% 늘었다.

같은 기간 노인 인구가 11만8000명(2008년)에서 13만6000명(지자체)으로 15.3%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것이다. 2020년엔 1만8300명, 2025년엔 2만3800명, 2050년엔 5만4800명이 치매를 앓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이 치매 급증이 발등에 불로 떨어졌지만 정부나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치매환자 관리대책은 여전히 끝없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치매노인 1만2400명 중 진료를

받은 환자는 56%인 6944명으로 추정되지만 44%인 5456명은 치료를 받았는지 등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광주에는 치매 관리 전문인력과 전문병동을 갖춘 치매거점병원도 없다. 치매노인 수가 1만 명도 안 되는 대전·충북·인천·대구 등의 경우 자치단체와 지역 병원이 합심해 거점병원을 지정받은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치매는 중증으로 진행할수록 의료비 및 부대비용이 늘어나 경증일 때보다 중증일 때 약 9배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각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에서 치매환자 가족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광역치매센터(치매거점병원) 지정 신청을 했는데,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내년에 치매거점병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동구,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 추진

광주시 동구(정창 노회용)는 14일 어르신들의 치아건강 유지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950명을 대상으로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은 잇몸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노인들에게 스케일링과 불소도포(불소를 치아에 직접 발라줌) 등을 실시해 잇몸질환을 억제하고 시린 이를 방지하는 사업이다.

구는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상태와 전신 상태 등을 고려해 불소도포·스케일링 또는 세마·불소도포를 구분한 뒤 처치할 계획이다. 구는 또 칫솔질 요령·의치관리법·식이요법·불소용품 이용 등 구강병 예방에 따른 교육과 실습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북구, 어르신들 안전사고 예방 나선다

3월12일~10월 22일 '경로당 안전복지서비스' 실시

최근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 복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북구가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경로당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경로당 안전복지서비스는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갖고 편리 지낼 수 있도록 맞춤형 생활안전 교육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교육 내용은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 교육, 대중교통 이용 및 노인교통사고, 횡단보도·교차로 보행 주의사항,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와 면허증 갱신방법, 교통법규 강의 등이

다. 구는 오는 3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북부소방서와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

계, 각 동(洞) 주민센터 등지에서 386곳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할 계획이다.

구는 또 구청 홈페이지와 경로당, 노인대학 등을 수시로 방문, 경로당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노인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p>개업·성업</p> <p>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p>	<p>송하한정식</p> <p>동구 금곡동2가 10번지 (구.동구청 골목) 한정식전문 단체손님예약환영</p> <p>대표 이미지 ☎(062)225-9278</p>	<p>신신예술의집</p>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p> <p>대표 서태석 ☎(062)222-1936</p>	<p>고전방</p> <p>동구 공동 34-4번지 중앙초등학교후문 도자기,서양화,고서화 전문판매점</p> <p>대표 김화중 ☎(062)224-4869</p>	<p>박당화랑</p> <p>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서양화 매매 및 감정 고미술품 전문</p> <p>대표 박환승 ☎(062)222-6866</p>	<p>황금당</p> <p>동구 황금동 90번지</p> <p>예물, 손글, 시계 및 고급품목일체</p> <p>☎(062)232-6453</p>	
<p>동양철학원</p> <p>동구 불로동 42-1번지 수영노인당옆 사주, 관상, 궁합, 택일, 개명 재물운, 혼사, 묘지상담</p> <p>☎(062)224-7687</p>	<p>금탑소머리국밥</p> <p>동구 대의동 31-1번지 동부서 금남지구대 소머리국밥, 소양국밥 콩나물국밥, 해물국밥</p> <p>대표 정은숙 ☎(062)673-7971</p>	<p>광주화랑</p> <p>동구 예술의 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제작판매</p> <p>대표 박종환 ☎(062)232-4784</p>	<p>녹슨드럼통</p> <p>동구 광산동 100번지</p> <p>압태지, 통바베류 100%(국내산)</p> <p>☎(062)222-0132</p>	<p>is(이즈)</p> <p>동구 남동 169-1번지</p> <p>대표 이육진 ☎(062)222-5425</p>	<p>예림화방문구센터</p> <p>공동 55 중앙초교길 예술의거리 디자인재로,동양재로,건축모형재로,사무용품 제도용품,각종석고,각종종이류,문구재료등</p> <p>☎(062)222-8143</p>	<p>프렌치스토리</p> <p>백운동 586-21번지 석산고양 귀족소스저리</p> <p>돈까스와 치킨이 맛있는집</p> <p>☎(062)471-8253</p>
<p>가디언엔젤스</p> <p>학동 628-1번지 휴먼시아입구 병원 동행 서비스 등하교/ 등하원 서비스</p> <p>☎(062)222-0882</p>	<p>삼각그린이발관</p> <p>북구 삼각동 그린타운@상가 108호</p> <p>염색등 성실하게 정성스럽게</p> <p>☎(062)574-6583</p>	<p>한우짜갈비전문점(침단점)</p> <p>광산구 쌍암동 664-6번지 침단병원옆 한우참소구이전문, 갈비살, 꽃등심 인창살등 최선의 서비스</p> <p>☎(062)971-5666</p>	<p>경희한방병원</p> <p>동구 학동 병무청영 전대병원옆골목앞편 목,어깨통증,일자목,VDT증후군,경추 요추,추간판,척추관협착증,퇴행성디스크</p> <p>☎(062)223-9595</p>	<p>The 좋은집</p> <p>북구 오치동 924-20번지 육신인테리어,누수탐사,설비,관벌,샷시전문</p> <p>대표 박영권 ☎(010)2607-6949</p>	<p>현대하우징광주·전남총판</p> <p>남구 병림동 524-1번지</p> <p>한미지연미루, 한미테크아트,양드레킹벽지</p> <p>대표 백종구 ☎(062)654-2299</p>	<p>365부동산</p> <p>백운동 435 백운휴먼시아3단지 입구 제일@후문</p> <p>365일 신뢰와 책임 중개로 임하겠습니다.</p> <p>☎(011)617-2296</p>
<p>부라더미싱(광주대리점)</p> <p>북구 누문동 205-2번지 복개사가 건너편</p> <p>부라더 미싱 전문점</p> <p>☎(062)524-1444</p>	<p>오도안사</p> <p>북구 누문동 83 광주일고 정문에서 은광교회가는길 도안, 회화, 컴퓨터, 차트, 코팅</p> <p>대표 오경일 ☎(062)523-2338</p>	<p>막동이해물나라</p> <p>진월동 411-1번지 대성여고아래 해물찜, 해물찜통 전문 단체손님환영</p> <p>대표 최유숙 ☎(062)651-9268</p>	<p>현대헬스클럽</p> <p>백운동 현대@먹자골목 이비동감자탕3층 365일 연중무휴 관장직접제도시위시설완비 시물함무로지급, 전화예약 : 1맞춤지도/6개월10만원</p> <p>☎(062)652-5283</p>	<p>두꺼비모차</p> <p>남구 봉선동 한일병원정문 맞은편 아나고랑,아나고주물력,병어조림,갯잎전,고추전</p> <p>점심특선:아나고랑 단체손님예약환영</p> <p>☎(062)674-4355</p>	<p>운동 처방</p> <p>봉선동 봉선초전문입구 대신@알미미술교습소옆 어깨,목,허리,통증 및 마사지 1회 이용시 1만원 토,일요일 정상근무</p> <p>맛사지를 통하여 건강과 시원함을 체험해보세요</p> <p>☎(010)6800-0182</p>	<p>품앗이노인복지센터</p> <p>서구 쌍촌동 한국병원옆골목 3층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요구,장기요양신청 및 등급판정수시상담 국민보험공단 최우수기관선정</p> <p>☎(062)371-8888</p>